

# 16 하나님의 축복을 버린 에서

창세기 25장 19절 ~ 34절, 27장 1절 ~ 40절



결국 에서에는 팔죽을 먹기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에서에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가 배 속에서 서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리브가가 놀라서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두 민족이 네 배 속에서부터 나누일 것이다. 그리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중 형은 몸이 붉고 털이 많아서 ‘에서’라고 했고,

동생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야곱은 집에 조용히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였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였습니다.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돌아온 에서는 팔죽을 끓이고 있던 야곱에게 말하였습니다.

“아 배가 너무 고파서 죽을 것 같다. 야곱아 네가 끓이고 있는 팔죽을 먹게 해

줘.” “그럼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요. 그러면 내가 팔죽을 줄게요.”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이까짓 <sup>1)</sup>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니?  
어서 팔죽이나 줘.”

<sup>1)</sup>장자의 명분 : 첫아들로서 아버지의 재산을 동생들보다 두 배 받을 수 있는 권리.

크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성  
경  
암  
송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히브리서 12:16)

결국 에서는 팔죽을 먹기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많이 든 이삭은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불렀습니다.

“이제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너는 사냥을 해서 내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오너라.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마.”

에서가 사냥을 하러 들로 나가자 이 말을 엿들은 리브가가 야곱을 불렀습니다.

“염소의 좋은 새끼를 가지고 와라. 내가 그것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줄테니,  
네가 에서 대신 아버지의 축복을 받거라.”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 두려웠지만 어머니의 말씀대로 하였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에서처럼 보이도록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야곱의 손과 목을  
감싼 후 에서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축복을 받기 위해 이삭에게 나갔습니다.

“아버지 큰아들 에서입니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야곱을 에서인 줄로 안 이삭은 음식을 먹은 후 야곱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축복을 받은 야곱이 나가자,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가로챈 것을 안 에서는 크게 울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해 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야곱에게 축복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축복할 것이 없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에서는 왜 장자의 명분을 팔았나요?

---



장자의 명분과 팔죽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에서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적어 보세요.

---



축복을 받는 방법



아픔은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 나아갈 때 어떻게 꾸미고 갔나요?

---



우리와 같은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



---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으로서   한  
자를   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18)



#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에서는 귀중한 축복을 받는 것보다 당장 배부를 수 있는 팔죽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래의 보기에서 여러분은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 )에 O표 하시고 그 이유를 적어 보세요.



( )



( )

이유:

-----  
-----  
-----



( )



( )

이유:

-----  
-----  
-----



( )



( )

이유:

-----  
-----  
-----





#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이 선택한 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느 것을 선택하기를 바라실까요?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영원한 것과 관계되는 것들을 선택하기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대로 당장 좋아 보이는 것만 선택한다면, 나중에 에서처럼 크게 후회할 것입니다.



아래의 그림에서 에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읽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다짐을 적어보세요.



난 축복을 받지 못해  
너무 슬펐어.  
그때 조금만 참을걸...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했는데 난 어떻게  
할 거니?

나의다짐

-----  
-----  
-----  
-----



## 예 화



###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미국의 어느 보험회사에 다니는 '세아'라는 월급쟁이가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살기가 어려워서 회사들도 돈이 없고 힘들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세아는 잠깐 노래를 부르기 위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세아는 건반 위에서 조그만 종이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종이쪽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것은 어머니 밀러가 괴로워하는 아들 세아를 위해 적어 놓은 시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인 세아가 예수님을 더욱 귀중히 여기는 삶을 살길 원했던 것입니다. 세아는 이 시를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에 곡을 붙여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이 곡이 바로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부모님난

선생님난

Blank white box for writing.

Blank white box for writing.